

environment NEWS



기후변화관련 국내 최대 회의, 성황리 마무리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기후변화장관급 회의(Pre-COP18)'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세계 각국의 장관들이 녹색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다시금 주목했다. 지난 회의는 총 47개국 250여 명이 참석해 규모나 참석 직급에서 한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사상 최대이자 최고의 회의로, 각국 장관들은 다가오는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 카타르 도하)에서 다루야 할 핵심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성공적인 도하총회(COP18)를 위해 1) 2차 공약기간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채택, 2) 장기협력행동 트랙의 종료, 3)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마련에 대한 협상(더반 플랫폼)이 지체 없이 2015년에 종료돼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골프장 수익금,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고?



2013년 초 준공을 앞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역주민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0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00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상부에 36홀 규모로 건설 중인 골프장은 주변지역 주민과 2014년 개최될 인천 아시안게임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사와 주민간의 '상생협의회'를 구성, 매립지 운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소통채널을 만들고, 수도권매립지가 운영되는 한 골프장 운영 수익은 전액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GDP성장률보다 '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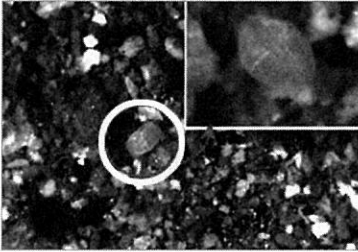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발표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업종별 허용총량을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 배출량은 590백만CO₂톤이고, 이 중 18백만CO₂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₂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설비도입 융자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와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다.

환경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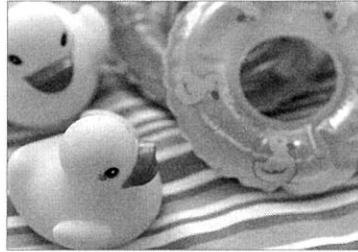
01

4천만 년 전 '멸종'된 생명이 살아났다?



무려 4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온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신생대 이후 생존 기록은 물론 화석 기록조차 없어 4천만 년 전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프람보사이테르' 속에 속하는 패충류 신종을 경상북도 울진 성류굴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패충류'는 퇴적 지층의 환경을 잘 반영하는 지표 생물로 몸길이 1 mm 내외의 씨앗 모양의 소형 갑각류인데, 광물 자원 탐사연구 및 환경 모니터링 시 경보종으로 활용되며 특히, 중금속의 급성독성실험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여 농약 등의 안전성 연구에 이용되기도 한다. 향후 패충류의 유전적 다양성 조사, 신물질 개발연구 등을 통해 생물 자원산업 활용과 더불어 효과적인 생물 자원 보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우리 아기 물고 빨아도 이젠 안심하세요~



똥든 입에 집어넣고, 똥든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어머님들께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부가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제한하는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공포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135종 중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DNOP, DINP와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TBT, 노닐페놀 등 4종을 선정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을 설정·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기준을 설정한 DNOP, DINP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어린이 장난감, 학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TBT는 어린이용 목재제품에,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혹시 나도? 국민다수가 화학물질 노출



국내 최초로 실시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인체 내 유해화학물질 16종의 농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의 70%에서 화학물질 16종이 모두 검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 수은, 카드뮴 등의 금속류 중 납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하 '외국')과 혈중농도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수은과 카드뮴은 식이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카드뮴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생활습관, 사회·경제요인 등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브라우니도 물고갈 중고물품, 여기 다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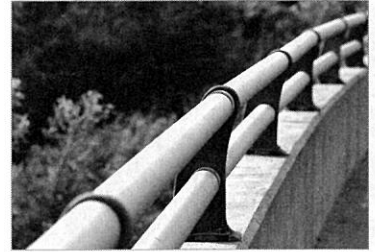
환경부는 '온라인 장터(www.re.or.kr)'를 구축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 제품, 가구, 유아용품 등의 중고 물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올해 말 '순환 자원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으로 중고 물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안에 중고 가전, 가구, 유아용품과 폐합성수지류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재사용) 가능 제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취급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과 사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과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는 한편, 안전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해 주변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중고 물품)을 누구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2014년 생물다양성을 위해 세계가 한국으로!



환경부는 지난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제12차 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 환경협약의 성실한 이행, 나고야 의정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협상 능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주요 환경협약 중 하나로, 매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이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유치는 우리나라는 경제·비경제적 파급효과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명실공히 국제사회 선도그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생물자원을 원천소재로 활용하는 국내 바이오업계 홍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 411만원 배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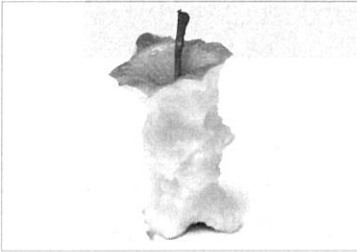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당진~대전)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1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이 과수원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교량 설치 후 일조방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 3,8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가 복숭아의 생육 및 수확량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해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 시 계획·설계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환경분쟁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02

사용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환경부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중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이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된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법 또는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대한상의 -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 '저탄소 경제성장' MOU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지속가능경영원과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대표 의원 새누리당 유기준)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운영에 협력하고자 하는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의 의지와 기후변화 입법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입장을 전달하려는 산업계의 의견이 일치되며 성립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을 합치기 했으며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잠비아 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주최 오찬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4단체는 지난달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치루피아 사타(H.E. Michael Chilufya Sata) 잠비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국기업인 70여 명과 잠비아 측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파 대통령은 '잠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상으로도 15개국, 2억 5천만 내수시장을 가진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중심에 위치하여 남아프리카지역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되고 있다.'며 양국간의 협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잠비아는 구리, 금, 아연 등의 광물 자원을 한국에 공급해주는 좋은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이 자원 뿐만 아니라 건설, 인프라, 관광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